권오을 前 의원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도청서 기자회견 공식 선언

지난해 대구매일신문(2013.12.11 2면)에 이창환 기자가 게재한 기사로 이를 전재한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국회사무총장(57. 안동. 35世. 검교공파현감공계)이 지난해 12월 11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前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한다"며 50대의 젊은 도지사로 확실한 대안이 되겠다 했다.

권 前 국회사무총장은 50대인 점을 부각시키며 70대인 김관용(72) 도지사에 비해 젊다는 점을 직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안동 출신의 권 前 의원은 도의원과 3선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권오을 前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11일 기자회견을 한 회견문을 전재한다.

경상북도 지사 출마 기자회견문
-젊은 도지사, 확실한 대안-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2014년 지방선거에 경북 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경북은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소명을 이루었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적 소명을 품은 영광스러운 지역입니다.

일찍이 화랑도정신을 내세워 민족사 최초의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후예이고, 근래 우리 민족사 가장 어려웠던 6.25전쟁 때는 낙동강 전투에서 풍전등화 같았던 대한민국을 피로 지켜낸 국란극복의 주역이었습니다. 60년대 한국 민주화의 시발이었고 산업화의 견인차였으며, 새마을운동으로 정신문화운동의 선봉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5명 배출한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풍부한 자원과 인적·물적 인프라, 유·무형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잠재력을 가진 웅도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웅도 경북에 걸맞는 위상을 갖지 못한 채 변방으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전과 변화 통해 국가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내년 도지사 선거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경북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활기찬 경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시대정신을 담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기간에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달성하여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민을 위한 도정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정 복지가 만개하는 행복한 도정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투명한 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키는데 장점인 보수성을 뛰어넘어, 정보화시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과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분,초가 다르게 변화하는 초스피드 시대와 다양한 가치관을 융합하는 스마트시대에는 새로운 경험과 기술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구도청시대를 마감하고 경북도청시대를 시작하는 이때, 대구·경북 상생발전은 물론 지방우대정책을 견인하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낙후된 경북의 국토 공간축과 대륙횡단철도와 국제항로를 구축하

여 통일의 물꼬를 틀고 글로벌 경북의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준비된 경륜과 열정으로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성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경북이 국가의 중심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 중추세력인 50대의 책임과 소명감, 경륜과 패기-

국민에게 봉사하고, 도민에게 헌신하라는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경륜을 쌓아 왔습니다. 도의원과 3선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키웠고, 국회 사무총장으로 행정력을 보완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 보낸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생각과 고충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사회중추세대인 50대가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명감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70, 80대 노년세대를 따뜻하게 모시고, 후배인 청년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50대 중추세대의 시대적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이제 경북의 미래, 경북의 활력과 번영을 위해 과감한 바톤터치를 이룩합시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나아갑시다.

'도전과 변화'를 향한 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내년 6월 경북도지사 선거가 '젊은 경북'의 시대를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 길목에 젊은 도지사 후보, 저 권오을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권오을

권영순 前 榮州體典 大會長

日本關西宗親會 相互親善 交流訪問 推進

일본관서종친회 상호친선 교류방문 추진

◇2013.11.22~24 영주청장년회·일본관서동친회 상호교류 방문기념(앞열 좌측부터 네번째 영철 일본관서 종친회장, 옆 영순 영주청장년회장)

영주 청·장년회(회장 권영순)는 지난 4월말 제25회 안동권씨 청장년 체육대회를 주최하면서 일본 관서종친회 권영철 회장(68)과 사전 유치 참가를 위해 오랜 절충 끝에 처음으로 해외1개팀(日本關西宗親會) 18名을 출전 성사시켰다. 이후 차기 행사 및 권문(權門)의 세계대회로 야심찬 계획을 추진 활성화를 위해 최근 11월 22 ~ 24일, 2박3일 동안 체전참가에 대한 화답의 답례로 영주청장년회(榮州靑壯年會) 주축 부녀회(婦女會) 포함(25名) 등이 일본관서 종친회(日本關西宗親會) 權英喆 會長을 찾았다.

한편 쌍방교류(雙方交流)의 본질은 혈족애(血族愛)의 바탕으로 '뿌리 알리기 사업' 추진 일환으로 지난 영주체전이 처음 계기가 되었든 것이다. 당시 일본종친회는 체전일 2일전 입국하여 행사 전 시조묘소 참배(始祖墓所 參拜)로부터 파친별 영덕, 안동, 예천 등지와 봉화 닭실마을 등 조상의 발자취를 안내하면서 혈족애를 다졌다.

금번 관서종친회(關西宗親會) 방문(訪問)은 2박3일 여정으로 우선 현지 여행 후 귀국 전야제는 영철 회장(英哲會長)이 경영하는 뉴오사카 호텔(New Osaca Hotel) 연회장에서 양측 60여명이 합동으로 축제 파티로 빙고게임, 노래자랑 이어서 선물교환, 기념촬영 등으로 상호교류(相互交流) 발족의식(發足儀式)을 공고히 하면서 타국에서의 뜨거운 친족(親族)의 정감(情感)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 후 영순 회장과 영철 회장(英喆會長)은 "내년 대전 권문축제체전(大田權門祝祭)에서도 함께(同參)하기로 하며 1차 현지 상호교류 증진을 마치고, 차기 권용기 대전유치 대회장(大田 大會長)에게 초기 일본관서종친회 상호교류 사업전개에 따른 제반 진행사항을 포함 뜻깊은 인계(弓繼)를 하였다고," 술회하였다.

(자료제공: 前영주체전 대회장)
〈권범준 홍보부장〉

대구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종친회(회장 권영하)는 지난 11월 26일 오후5시 대구시 신청동 라이온스회관 5층에서 종친회 임원진, 족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상주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시조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영하회장의 임원진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권기점(외 3명)에게 공로패를 신임부회장 권일환 운영위원 권오신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권영하회장의 인사와 권도혁박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2013년도 경과보고와 결산보고와 권충강감사의 감사보고 후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치었다. 이어서 만찬에 들어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정담을 나누며 내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권기범 사무국장〉

(사)유교문화보존회 권오찬 이사장 취임

◇경북유교문화회관 강당에서 (사)유교문화 보존회3대 이사장 권오찬씨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오전 10시 경북유토문화회관 4층강당에서 안동, 영주, 성주, 경주 포항, 문경, 상주, 의성,예천, 유림단체, 유도회, 향교 전교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회 제3대 이사장에 권오찬씨가 취임했다.

권석한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문묘배향에 이어 송월민(영주향교), 안승관(안동유도회장), 고영조(문경), 김덕수(봉화), 안철호(안동 박약회) 등, 내빈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권오찬이사장은 취임인사에서 본회는 청년유도회 지원사업으로 유교문화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는 중요한것이 문화정책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책」이야말로 이 나라 국력과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권영세 안동시장, 강일호 영북청년유도회장의 각 축사가 있었으며, 경과보고, 결산보고 후 김병일(한국국학진흥원장)의 30여분의 걸쳐 「포럼특강」으로 모두 마치었다. 〈권혁세 기자〉

울산 원연친목회 정기총회 권태룡회장 선출

◇권태룡 신인회장이 취임사를 하고있다.

울산 원연친목회는 지난 12월 14일 19시 우미가에서 회원 부부동반 약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총회 및 제9대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권오영 종친회장 권혁환 종진회 사무처장 권명달 청장년회 차기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권응목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만호 회장의 송년사 및 이임사 그리고 권태철 재무의 결산보고 권영배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회칙개정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제9대 집행부에는 신임회장 권태룡, 부회장 권기홍, 감사 권만호, 재무 권태철, 총무 권응목이 선임되었다.

권태룡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원연회의 무궁한 발전의 기반은 바로 회원들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이됨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회장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전·현직 회장의 건배제의를 끝으로 폐회를 하였다.
〈권응목 총무〉

능곡회 11월 월례회

지난 11월20일 오후7시, 안동 '착한오리식당'에서 회원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곡회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기춘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영훈회장은 인

사말에서 회원 여러분이 지난 11월17일 시·아조추향제 제물봉송에 매우 수고했으며, 또한 明年 4월27일 제천, 뿌리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전국체전행사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폐회했다. 〈권혁세 기자〉

괴운칼럼

태풍의 비극에 휩싸인 필리핀

■ 괴운 권해조

지난 11월 9일 태풍 하이옌(Haiyan: 海燕)으로 필리핀이 큰 비극을 맞았다. 최고 풍속이 시속 379Km 의 역대 최강 급 태풍이 할퀴고 간 필리핀 중부지역 레이테 섬 부근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2005년부터 토네이도, 허리케인, 태풍경로를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스톰 체이스' 들도 하이옌의 급습을 역대 최악이라고 보고 있으며, 외신언론들도 적어도 1만 2천여 명의 사망, 80여만 명의 부상자와 428만여 명의 이재민과 140억 달러(약 15조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박대통령도 '최근 귀국이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의 소식을 접하고 우리국민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과 필리핀국민께 위로를 드리며, 희생자와 그 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위로 전문을 보냈다. 정부도 10일 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우선 500만 달러(약 54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하고 의료진 20명, 119구조단 14명, 한국 국제협력단(KOICA) 4명, 외교부 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 국방부도 별도로 C-130 수송기 2대를 파견하여 담요, 텐트, 위생키트, 정수제, 비상식량 등 긴급구호품을 호송하고 있으며, 건설공병과 의료팀 약 400명 규모의 재건활동 병력을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도 대대적인 구호 활동 모금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12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100만 달러, 대한적십자가 10만 달러 지원, 그 밖에 방송사도 연일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구호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제일 먼저 국제개발처 (USAID)에서 2천만 달러(약 214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고, 12일 90여명의 해병 선발대를 포함하여 약 5천여 명의 병력과 KC-130 수송기 2대, 홍콩에 정박중인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함재기 80여대로 구성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함을 파견하였고, 영국도 싱가포르에 정박중인 함정 1척을 급파하고 C-70화물 수송기도 파견할 예정이다. 유엔도 응급 의료품과 식수, 위생 시설비 지원 등에 2천5백 만 달러를 지원하고, 세계식량계획(WFP)도 200만 달러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현재 많은 국가들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필리핀은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누란의 위기에 있을 때 5천여 명의 지상군 1개연대규모를 파견 지원 하였고, 전쟁기간 중 연 7,420명 참전에 112명 전사자와 300여명의 부상을 당했다.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도 소대장으로 참가했고, 베니그노 아키노 현 대통령 아버지도 참전용사이다.

그리고 전후 1963년 우리나라 최초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 건립에도 원조와 기술진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근래 한류열풍으로 문화교류와 T-50 훈련기 도입의사 등 군사교류도 활발하다.

특히 6천여 명의 결혼 이민자를 포함하여 4만 2200 여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체류 중이며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 국가이다.

필리핀은 2012년 세계은행 발표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400여 달러로 180개국 가운데 122위의 가난한 나라다. 이번 태풍으로 필리핀은 인구 9%에 달하는 950만 명의 피해, 주택 6만여 채가 파괴되었다.

현지경찰과 지방정부의 사망자 수를 과다보고를 지적하고 있지만, 유엔과 필리핀 당국에 의하면 태풍 이재민 구호에 최소 3억 달러가 필요하며, 현재 필리핀 복구예산은 5200만불 정도에 불과하다.

KBS1 TV 24일 방영된 러브인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두자매의 필리핀 반디마을의 처참한 광경은 차마 볼수가 없다. 의료봉사단, 대한적십자사구호품과 자매가 구입한 발전기 1대로 마을이 전등불을 밝히고 사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이번 필리핀 태풍에 시사점이 많다. 무엇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대책이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2004년 인도네시아 태국남부 일대를 초토화시킨 쓰나미(지진해일), 2005년 미국 뉴올린스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5월3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시속 200km의 싸이클론 '나르기스'와 5월12일 중국 쓰촨성 완찬(汶川)지역의 리히트 규모 7.9의 강진, 2011년 3월 후쿠시마 앞 바다에 8.8 규모 강진해일 등으로 지구촌의 대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9년 9월17일 추석아침 초대형 태풍 사라(SARAH)로 사망 849명, 이재민 25만 5여명과 건물8만 1천500여동, 선박 5437척, 재산피해 661억 원 7천만 환(3천억 원)이였다. 2002년 8월31일 태풍 루사로 246명의 사망과 피해액 5조3천억 원, 2003년 태풍 매미로 사망 175명, 재산피해 4조7천억 원이였다.

그리고 1996년 동아시아 지진 포럼에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최근 지진 발생회수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경기지역에 6-6.5의 강진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초강력 태풍에 비극을 맞은 우방국 필리핀을 적극 도와야 하며, 피해복구를 위한 재건병력파견도 이루러지도록 조속한 국회동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번 태풍을 교훈삼아 정부는 물론 개인들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동정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일간지 논설위원과 국방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여·야가 지난 6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특위)의 위원에 새누리당 권동성의원(강릉, 53·37世 복야공파)이 선임됐다.

▲지난 28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제2묘역에서 열린 故 채명신장군의 영결식에 권오성육군참모총장이 헌화했다.

▲법학·공학·사회학 등 다양한 융합연구를 통해 재난과 안전사고에 종합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사)법안전융합소 초대소장에 권동일(56)서울대교수(재료공학과)가 선출됐다.

▲권중달(본원 자문위원 前 중앙大교수)현 삼화연구소장은 2014년 1월부터 사단법인 대륙전략연구소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국방부산하 주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중국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는 지난 7일 한국교원에 권이종(73) 명예교수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심포지엄'에서 권순진(광물자원공사)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칼럼

甲午年 希望을 가지자

權五福
(본원 편집위원)

빈 배는 작은파도에소 쉽게 흔들려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다. 그래서 얼마간의 짐이 실려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정도의 고통과 가난이라는 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대로 주저앉고만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마음이라는 복잡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의에 옮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현명한 철학과 종교를 가지게 된다.

살아가면서 되도록 고통은 줄이고 기쁨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인간은 꿈이 있고 꿈을 키워가는데 삶의 지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칠전팔기의 도전마저 해처나가야하는 것이다 희망은 스스로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며 믿음과 기대로 추구하는 눈이다. 자신의 희망을 찾아서 용기를 잃지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절망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에서 희망의 빛이 꺼져갈때 깊은 사랑으로 위로 하면서 자신감을 수혈해주자. 그러면 희망은 되살아나서 불안과 두려움을 불사르고 기적을 이루어낼 것이다.